

부활 제 4 주일  
(성소주일)

기도서 P. 287 B해

제1독서(사 도 4. 8-12)  
제2독서(요 한 I 3. 1-2)  
복 음(요 한 10, 11-18)

# 숲 정 이

|     |       |
|-----|-------|
| 발행인 | 법 석 규 |
| 인쇄인 | 김 희 호 |
| 주 간 | 조 병 상 |
| 편 집 | 한 상 갑 |

편집실 : 전주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 강 련



## 오늘은 성소(聖召)주일

김 동 준 신부

“이 사람아, 야훼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들어서 알지 않느냐? 정의를 실천하는 일, 한결같은 사랑을 즐겨 행하는 일, 조심스레 하느님과 함께 살아 가는 일, 그 일밖에 무엇이 더 있겠느냐?”(미가, 6장 8절)

“아! 탈신한 민족, 불의로 가득찬 백성, 사악한 중자 부패한 자식들, 야훼를 떠나고 거룩하신 분을 업신 여기고…… 머리는 상처투성이 속은 온통 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구리까지 성한 데가 없어도 짜내고 싸매고 약을 발라 주는 이도 없구나.”(이사야, 1장 4~6절)

“모세가 야훼께 - 주여 죄송합니다. 저는 못난이입니다. 어찌도 그찌도 그러했고 당신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어서 가거라. 내가 도와 비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비가 할 일을 가르쳐 주리라. 주여 죄송합니다. 보내실 만한 사람이 따로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을 보내십시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출애굽기, 4장 10, 13절)

당신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답고 넓은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고자 부탁하시는 말씀과 모세의 답변이다.

만물은 하느님의 부르심에 저 나름대로 차질없이 응답한다. 우주와 대자연의 질서이고 아름다운 본디의 모습이다. 5월의 들녘은 사랑이신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생명의 합창이며 응답이다.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영(靈)의 입김을 불어 넣었다”는 창세기 2장의 가르침대로 특별한 정성과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에게는 한 목적을 향한 저마다 다른 성소가 주어져 있다. 여기 응답하는 모습에 따라 「된 사람」과 「왜 먹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진다. 예수는 하느님의 성소(말씀)이다.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모범인-인간 예수의 길을 구체적으로 따라 나서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더 나아가 하느님의 평화, 우리에게 대한 희망, 기쁨, 말씀, 하느님 나라로의 초대-이 일을 위해 몸바쳐 사는 사람들이 사제와 수도자이다. 인간적으로는 조금은 섭섭한 삶이다. 그러나 비할데 없이 아름답고, 보람과 가치를 체험하며 모두에게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삶이다.

오늘은 성소 주일이다. 뜻을 두고 있는 당사자라면 무엇을 두려워하고 망설이는가? 후원자라면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할 바를 다 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음할 일이다.

<해성 중·고등학교 종교감>



## 스승에게 위신과 영광을

「스승에게 위신과 영광을」-대한 교련이 정한 금년도 교육주간의 주제이다. 교련회장은 “교사와 사회가 서로 노력해서 스승으로서의 위신과 영광을 되찾는 노력”을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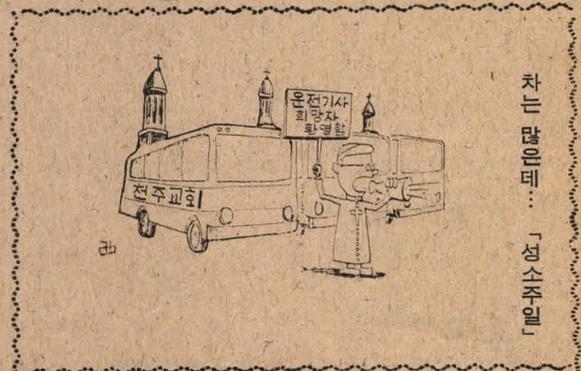
보도에 의하면 지난해에도 많은 이(5천여명)가 교단을 떠났다 한다.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떠났단다.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와 시골에서 많이 떠났단다. 왜 떠나는가? 교직을 성직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마 성직을 지킬 수가 없어서 그랬으리라. 솔직히 말해서, 꼭 써야 할만큼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리라.

경향신문은 세계 어린이 해를 맞아 어린이들의 의식조사를 했다. 고맙게도 한국의 어린이들은 교사를 존경하고 있다. (남자 어린이… 부모, 이순신, 세종, 에디슨, 링컨, 아인슈타인, 교사順. 여자 어린이… 부모, 이순신, 세종, 진사임당, 류판순, 교사順). 장차 되고 싶은 사람에서는 남자 어린이는 7순위에서, 여자 어린이는 제1순위에서 교직을 희망하고 있다.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원동력은 경제성장보다는 바른 교육에 있느니만큼, 우리 어린이들의 의식속에 교육자를 존경하고 교육자가 되고 싶어함은 꽤 다행이다. 혹시라도 교육계가 먹고 사는 방편으로 제일 안전하다고 보아서 교육자가 되고 싶다는 마음만 없다면 말이다.

교육자로서의 자성이 또한 문제이다. 일부 교사들이 질책받는 것처럼 「과의 브로커」가 되어서는 물론 안되겠다. 또 풍문에 들리는대로 어떤 국민학교처럼 소풍 다음 날 나누어 주는 학용품 선물에 전날의 소풍시 「춘지」와 정비례해서도 물론 안되겠다. 교사는 교사대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자.

당국은 경제성장에 걸맞게 교사를 대우하자. 그래서 바른 교육풍토가 일게 하자. 그래야 「스승의 위신」이 서고 존경받는 스승이 나올게 아닌가!

## 숲 정 이 산책





젠들에게 보내는 글

# 새 하늘 · 새 땅 (1)

정 태 현 신부

먼저 젠들의 안부를 묻고 싶습니다.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기쁜 모습으로 복음을 열심히 실천하고 계시겠지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집안에도 거리에도, 라디오나 신문, 텔레비나 영화 각종 주간잡지에도 온통 주력(폭력)과 돈과 섹스와 소음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신물이 나도록 보고 들었습니다. 권태로움과 공허감이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좀먹고 있습니다.

좀 더 신신하고 맑은 것, 공허한 마음을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요?

우리 젠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지요. 그건 두말할 필요없이 2,000년전부터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보다 생활률(生活律)입니다. 복음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외치고, 마음에 새기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됩니다. 복음은 성직자나 수도자, 성서학자나 신학자들의 전유물(專有物)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대중들에게 일상생활 안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주어질 생활지침입니다.

복음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을 때, 그것은 골동품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우리 젠들이 말이나 노래로만 복음을 외치고 실천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우리 정신과 운동을 비웃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에도 어김없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달의 생활말씀은 아주 매력적인 말씀이군요.

“여러분은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덧붙여 받게 될 것입니다”(마태 : 6. 33).

이 말씀은 극심한 물가고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과 거리가 먼 것처럼 들려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으로 들었던 갈릴레아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비현실적인 말씀으로 들렸다는 사실을 알아야하겠습니다. 그들 역시 로마의 과중한 세금정책에 극도로 시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 인생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 물질을 위해서 살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단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애 전체를 통해서 계속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세상 일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지요. 우리는 삶의 일터에서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사물 때문에 불안과 근심 걱정의 희생물이 되어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먼저 구해야 할 하느님 나라와 하느님의 뜻을 잃어버릴까봐 하신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젠들, 용기를 내어 주님의 말씀을 모든 것 앞에서 선택하십시오! 침묵 가운데 몸으로 이 말씀을 살아가는 때 우리 앞에 새 하늘·새 땅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자 제모임 : 매달 둘째 주일 오후 2시 전주 성심여고  
남자 제모임 : 매달 넷째 주일 오후 2시 전주 중앙성당

## “사제양성을 위한 사순절 성금운동” 중간보고

여러분들의 사순절 정성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교구에 모아진 현재의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매개의 본당이 작년도의 수준을 넘고 있습니다. 현재 교구에 모아진 성금도 “우선 모아진” 것이라는 말을 들으니 큰 힘이 습니다. 정성껏 키운 하얀 토끼, 더 이상 집에 두지 마시고 본당에 보냅니다.

| 지구   | 본당             | 77년도 사순절 현금                 |                 | 78년도 사순절 현금                  |                  | 79년도 사순절 현금                   |                   | 전년도대비               | 후원 기금                         |
|------|----------------|-----------------------------|-----------------|------------------------------|------------------|-------------------------------|-------------------|---------------------|-------------------------------|
|      |                | 성금                          | 1인평균            | 성금                           | 1인평균             | 성금                            | 1인평균              |                     |                               |
| 제1지구 | 김제             | 171,063원                    | 63원             | 162,040원                     | 63원              | 220,000원                      | 106원              | 168%                | 50,000원                       |
| 제2지구 | 문물동<br>용안      | 131,371<br>115,000          | 53<br>103       | 171,432<br>151,840           | 77<br>132        | 300,000<br>174,140            | 110<br>150        | 143%<br>113%        | 697,000원<br>(해당부)             |
| 5지구  | 금산<br>남원<br>임실 | 80,375<br>111,120<br>94,678 | 61<br>91<br>107 | 159,325<br>143,580<br>93,725 | 121<br>113<br>90 | 150,000<br>208,297<br>122,553 | 106<br>157<br>117 | 88%<br>139%<br>130% | 150,000원<br>264,720원<br>(해당부) |

□설계·감리 허가수속 □하느님의 성전과 교향자매들의



보금자리 건축상담 환영!!!

### 신원건축연구소

1급 건축사  
김철수 (금구연))

☆전주 가톨릭센터 220호실  
전화3-7780, 3-(야간)1449

◆ 고급 숙녀복 · 쇼킹 패션 코너

### 제일모직라보떼

김형택(바오로)

□전주시 중앙동 3가 67-10

(우체국 후문 앞)

전화 2-7404

□ 성소 주일



젊은이여, 영군사관(靈軍士官)의 꿈을!

김 봉 희 신부

성소(聖召)란 인류구원 대 사업에 당신의 협력자를 부르시는 「거룩한 하느님의 부르심」을 말한다. 그러나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에선 비범한 결의 아래 「그리스도 왕국」건설을 위해 오로지 봉사하고 희생으로 일생을 헌신 할 주님의 용사, 특사를 부르시고 모집하십시오. 주께서는 일찌기 이를 위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단을 선정하시고 당신 성교회를 그들에게 맡기셨던 것이다.

초대 교회가 그러했고 유구한 2000년의 교회 성장이 그러했듯 오늘에도 목자없이, 교역자 없이는 결코 교회가 제대로 발전될 수 없는 일 임은 두 말 할 나위가 없다. 아니 현대처럼 물질만능에 사로잡혀 있는 세태속엔 더욱이나 용맹한 그리고 뜻있는 투사, 구원의 사자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하여,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당신의 일꾼, 사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통해 계속 지도 육성하시지 않는가? 그 옛날의 제자들처럼 비록 미흡하긴 해도, 지금 이 땅에서 그분의 길을 밟아가는 까만 생들, 그들이 적지만 오늘의 우직한(?) 그 영광의 후예들임을 나는 그대 우러러 믿는다.

하지만, 지금 우리 너무도 부족하고 너무도 벼락다.

폭발하는 인구,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악의 세력, 부정과 폭력 앞에 또 날로 창궐하는 육욕과 탐욕의 가시덤불 속에, 그리스도 역군이 되어 헤쳐나갈 “착한 목자”의 동료들은 안타깝게도 그 수가 미치지 못한다. 하기야, 초대 교회를 생각하면 그리 새삼스러울 것도 아니요, 또 그리스도의 성령을 힘입기에 뭐 용기 잃을 바는 아니나 다만 오늘에 그 과업 함께 할 총아, 함께 죽어 살 젊은 기상 부족함이 못내 아쉬울 뿐이다.

백과과 제수(弟嫂)를 탐하는 철권「혜룻」이 부러워신가? 권세와 지위에 아첨하는 「빌라도」, 황금에 눈 먼 「유다스」가 더 타산적이어서인가? 오늘에 “저질적인, 물치각한 인사(?)” 꺼려하는 비굴함이 더욱 야속하다. 가슴 아프다.

오호! 젊은이, 야망의 사나이여, 응지를 품으라. 꿈을 펴 보라! 그대의 성소는 무엇인가? 불쌍한 죄인, 연약한 세인을 구하기 위해 십자가의 희생을 치루셨던 주 그리스도를 그대는 진정 신봉하는가? 사랑과 정의의 위해 고귀한 한 생명을 바칠 오늘의 위대한 순교자, 복음의 증거자는 어찌면 바로 그대 자신일런지도 모른다. 삶을 짊어는 순교자, 「죽음의 사관」이 되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성소(聖召)에 응답해 보자.

젊은이여 가자! 그리스도의 대열, 십자가 밑으로! 복판 생의 회열, 참 삶의 보람이 있나니...

(사제양성후원회 지도신부)

요심이 (301) 김병오



사진재료 · 사진기계 · 도산매 칼라필름 ※교형 자매 우대

태 광 사

주 유 가에따노(영문) 전주시 중앙동(우체국 옆) 전화 ② 6346

◆경운기 · 분무기 전자동 탈곡기 트랙터 · 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 신사복의 전당!

특수복 · Y셔츠 맞춤

창 성 양 복 점

대표 유 창 수(벨라도)

전주시 다가동 1가 60~2

(황외과 앞)

전화 2-4342

\*교우님들의 성원을 바랍니다.

직 원 채용 공 고

- 인 원 : 0명
- 자 격 : ① 23세 미만의 고졸 이상 여자  
② 주산 및 부기 3급이상 자격소지자
-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통
- 제출기간 : 5월 8일(화) 오후 8시까지
- 제출처 : 당조합 사무실(본인이 직접 제출)
- 시 령 : 일반상식 및 주산
- 시험일자 : 5월 8일 오후 8시 당 조합
-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전화 ② 6016번 또는 효자동 삼거리 당 조합 사무실로 문의 바람

전주 파티마 신용협동조합 조합장 이 교 성

□ 직원 채용 공고 □

- 모집부문 및 자격
    - 남자 : 0명
    - 자격 :
      - 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 고졸이상 졸업자
      - 병역을 필한자 및 면제자
  - 제출서류
    - 이력서 1통 및 반명함판 사진 2매
    - 주민등록등본 1통
    - 병적 확인서 1통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통
    - 신원증명서 1통
    - 건강진단서 1통
    - 자격증 소지자는 사본 각 1통 (주산부기)
  - 접수마감 : 1979. 5. 10. 17시
  - 전형방법 : 필기시험 및 면접
  - 전형일자 : 1979. 5. 11.
  - 접수처 : 당 조합 총무과
  - 기타 : 자세한 사항은 문의바람
- 노 송 신 용 협 동 조 합  
전화 2-4834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오늘은 성소주일...자녀들의 성소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세요.  
□ 행사시간(오후 2시)...① 아동부(중앙성당), ② 중등부(전동성당), ③ 대학·일반부(주교님 미사집전 가톨릭 센터) □ 신학교와 수도회 소개 사진 및 자료 전시...가톨릭 센터.  
□ 성체회 수녀원 개방...오후 3시부터 6시까지
- 사제 피정(7일~11일) 및 사제총회(11일~12일)...가톨릭 센터에서 신부님들의 피정과 총회가 성령의 감도아래 잘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 금산·장수·장계·진안·한들 지역 꾸르실로 올드리아...13일(일) 오후 2시, 장계성당에서 제 5지구 A지역(위 본당) 꾸르실리스트들의 빠짐없는 참석을 바랍니다.
- 지성인을 위한 신앙강좌...17일(목) 오후 7시 30분, 가톨릭 센터에서  
① 주제...신은 죽었는가? ② 강사...박도식 신부(철학박사, 광주 대전 신학대학 교수)
- 여성 6차 꾸르실로 동창회...20일(일) 오전 11시, 가톨릭 센터, 회비 1,000원
- 지난주 소식에 초 본당 성령세미나(노송동 본당)는 오기였기에 정정합니다...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숭정이 편지실 전화성금, 감사합니다...전동 임영씨 5천원, 김윤섭 신부 3천원  
■ 이대주 신부님 엄친 이종석(노랜쥬, 64세)씨 선종...기도해 드립니다.

(중앙)

전화 ③3651 3874 주임 신부 서용복 보좌 신부 정태현 사도 회장 이복석

- 프란치스코 3회피정 : 6일(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강당)
  - 환자 영성체 : 7일(월) 오후 2시
  - 사제피정 : 7일(월) 오후 5시~11일(금) 피정동안 아침, 저녁미사 없음 ※ 신자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 꾸리아 묵상회 : 12일(토) 오후 2시~13일(일) 오후 2시 장소 : 가톨릭센터
  - 견진일 : 6월 3일(일) 준비 잘하세요
  - 영세일 : 6월 30일(토)
  - 주일학교에 관심을 가지시다
- 지난주 봉헌금 : 215,643원

- 토끼저금통 금주 내에 꼭 사무실에 내주세요
  - 사제피정 및 총회 : 7일~12일까지(미사 없음)
  - 학생회 월례회 : 학생미사 후 춘계소풍 잘 다녀왔습니다
- 지난주 봉헌금 : 201,570원

(서학동)

전화 ③2276 주임 신부 오현택 사도 회장 황인구

- 사도회 : 10시미사 후
  - 성모성월 : 목주기도(매주 미사 전후)
  - 수요기도회 : 9일 밤 8시
  - 사제피정 : 7일~12일 미사 없음
  - 주일헌금은 불투로...
- 지난주 봉헌금 : 79,045원

(노송동)

전화 ③7032 주임 신부 김정원 보좌 신부 김성록 사도 회장 김성록

- 애령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자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주일학교 자도님들의 빠짐없는 참여를 바랍니다
  - 본당 재산관리 위원회 조직 : 위원장-김성록 간사-박일천, 위원-이병하·강순도·임종환·전길남 이상 여러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 성령기도회 : 매주(토) 오후 8시, 본당에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특히 세미나를 받으신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지난주 봉헌금 : 103,228원

(숭정이)

전화 ③7366 주임 신부 이대권 사도 회장 이강노

- 토끼저금통 오늘중에 꼭 내주세요
  -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애령회 회사회 누계 : 51,500원 감사합니다
  - 신축기금 : 진북동-안경순(50만원), 이세순(10만원) 감사합니다
  - 중·고 학생미사 : 토요일 7시30분미사에 나와주세요
  - 제 1지구 신철 임직원 체육대회 5월 13일 삼례국민학교 교정
- 지난주 봉헌금 : 161,800원

(덕진)

전화 ③2182 주임 신부 석기복 보좌 신부 전종삼 사도 회장 유제상

- 사도회 월례회 : 사도회 임원님께서 빠짐없이 참석하세요
  - 공소미사 : 매월 둘째주일 오후 8시-내동리, 3째주일 오후 8시-미산리, 4째주일 오후 8시-전당리
  - 예비자 교리 : 일요일 오전 11시·수요일 저녁 8시
  - 사제피정 관계로(7일~11일) 본당미사 없음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가정방문 : 14일~17일 본당신부님-팔복·송천, 보좌신부님-덕진 1~7만
  - 주일학교 교리 : 일요일 오후 2시, 미사-3시
  - 현재 총 수입 : 3,320,562원 총지출 : 3,247,449원 잔액 : 73,113원
- 지난주 봉헌금 : 33,290원 교무금 : 130,415원

(전동)

전화 ③3222 주임 신부 김병엽 보좌 신부 김기종 사도 회장 유수홍

- 사도회 : 저녁미사 후
  - 유아세례 : 오후 2시미사 후
  - 학생회 주회 :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달아 드립니다
  - 성모성월 로사리오(목주) 기도 : 매일 저녁미사 후 푸르드 성모 동굴 앞에서
  - 신부피정 : 5월 7일(월)~11일(금)까지 7일 저녁미사부터~12일(금) 아침미사까지 없음
  - 고미씨음 아치에스 행사 : 다음주 오후 2시로 연기
- 지난주 봉헌금 : 224,590원

(복자)

전화 ③5238 주임 신부 김종택 보좌 신부 박성팔 사도 회장 조성호

- 사도회 월례회 : 오늘 공식미사 후
- 성우회 월례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열기철 형제대)
- 그리스도 공동체 묵상회 : 5월 매주(토) 오후 3시부터 주일 공식미사까지, 대상-전신자 묵상회 성공을 위해 전신자들은 매일 주모경 1번씩
- 약속한 봉헌금 매주 밀리지 않았는지? 미수금 정리합니다

(파티마)

전화 ③0915 주임신부 문정현 사도회장 채수현

- 사도회 및 구역장 회의 : 오늘 공식미사 후
  - 바오로회 : 다음주 공식미사 후
  - 본당 자체교육 5월 25일 저녁 8시 : 평신도 활동과 그 보람 6월 1일 저녁 8시 : 평신도와 교회공동체
  - 성모의 밤 행사 : 5월 19일 저녁 8시
  - 구역미사 5월 5일-시영주택, 5월 12일-2단지 아파트 5월 26일-1단지 아파트 6월 2일-에그린아파트
  - 4월까지 수입 계 : 2,587,318원, 지출계 : 2,336,977원 잔액 : 250,341원
- 지난주 봉헌금 : 57,085원